

PROGRAM NOTE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1833-1897

교향곡 4번 e 단조, 작품번호 98

Symphony No. 4 in e minor, Op. 98

브람스는 이 작품에 이르러 '낭만적 내용과 고전적 형식의 융화'로 일컬어지는 독자적 교향곡 양식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 곡을 끝으로 더 이상 '교향곡'은 남기지 않았다. 사실 이 곡은 브람스의 '비장의 카드'가 아니었나 싶은데, 작곡 과정에서 상당 기간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그 진척 상황이나 정보를 비밀에 부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그런 행동이 브람스에게 있어서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이 곡에 대한 보안에는 좀 유별난 구석이 있었다. 그 이유는 당시로서는 무척 과감한 모험을 감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중세 교회선법을 도입하고 바로크 변주곡을 구사하는 등 과거의 음악양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브람스가 이 곡을 완성한 후 빈의 살롱에서 친구 브뤼클과 함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편곡판을 연주했을 때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내비쳤다. 비평가 한슬릭은 "지독히 영리한 두 사람에게 머리를 두드려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고, 전기작가 칼베크는 브람스에게 스케르초 악장을 휴지통에 던지고 피날레는 따로 출판하라고 충고했다. 심지어 절친했던 클라라 슈만과 헤르초겐베르크 부인마저 지나치게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1885년 10월 27일 마이닝겐 궁정에서 이루어진 정식 초연은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공작은 대만족을 표시하며 1악장과 3악장의 재연을 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 교향곡은 빈에서 남서쪽으로 85km 정도 떨어진 뤼르추슬라크에서 작곡되었다. 브람스는 1884년과 1885년에 여름휴가를 보내며 '교향곡 4번'과 여러 가곡을 쓴 이 산간마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언급들을 남겼다. 우선 클라라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놀랄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법과 같은 달밤의 하루를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지는군요." 또 지휘자 한스 폰 벨로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나는 이 작품이 이곳 기후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몹시 두렵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버찌들은 결코 단맛을 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뤼르추슬라크의 버찌는 정녕 이런 맛이었을까? 이 교향곡은 대체로 어두운 색조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씩씩해진 여운을 남긴다. 이 곡은 작곡시기상으로 소위 '브람스 만년의 작품'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년의 작품들에 드리운 '질은 우수와 적막감'을 내포하고 있다. 이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 브람스의 나이 어느덧 50대 초반! 어쩌면 그는 지나온 고독한 삶을 미련과 회한 가득한 시선으로 반추하면서 그 궁극적 귀결점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1악장: 첫 악장은 무척 단순한 모티브로 출발한다. 곡이 시작되면 바이올린이 하행 3도 및 상행 6도 음정을 번갈아 꺼내놓으며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모티브는 악장을 구성하는 기본 소재로서 마치 건물을 짓는 벽돌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에 부수적인 선율들이 어우러지면서 제1주제부를 형성하고, 강한 리듬 위에서 사뭇 비장하게 흐르는 제2주제(호른과 첼로), 한결 부드러운 오보에 선율 등이 대비를 이루면서 고도로 건축적이고 드라마틱한 흐름을 구축해 나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브람스가 그 단순한 모티브들의 연결과 확장을 통해서 짜놓은 제1주제 안에 붙여 넣은 숨결은 짙막한 음표들 사이사이에 놓인 쉼표들을 통해서 전해진다. 그 탄식과도 같은 허전함, 왠지 가슴 한 구석이 시린 느낌이야말로 이 곡의 기저에 흐르는 정서를 대변한다 하겠다.

2악장: 발전부가 생략된 소나타 형식을 취한 이 악장에서 브람스는 중세 교회선법(프리기아 선법, Phrygian mode)에 기초한 선율을 사용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 악장을 가리켜 '달빛 비치는 언덕 맞은편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장례행렬 같다'고 했는데, 분명 이 악장에는 어스름한 빛이 스며있고 종교적인 기운이 흐른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우리는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한 고독한 인간의 회한과 번민을 목도하게 된다.